

‘2021년 목포 으뜸맛집’ 16곳 최종 선정

맛깔스러운 음식·위생 관리 상태 등 절차 걸쳐 오는 1월부터 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목포시가 지난 17일 ‘2021년 목포 으뜸맛집’으로 최종 16곳을 선정했다. 2021년 목포 으뜸맛집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음식, 특색있는 목포 별미요리, 위생 관리 상태 등 엄격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걸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정절차의 투명성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식품·외식·관광 학계 관련자 및 민간전문가로 목포 으뜸맛집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9월 공개모집에 접수한 총 58개소

중 행정처분이나 신청자격 충족여부의 결정사유 조회 등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한 41개 업소를 대상으로 맛, 향토성, 서비스, 위생, 분위기, 영업철학 등 6개 항목에 대해 2차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목포 으뜸맛집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마쳤다. 이번에 선정된 으뜸맛집 정보는 2021년 1월부터 목포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시는 총 140곳의 목포 으뜸맛집을 더욱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목포의 재미진 맛을 전국에 알리고 수준 높은 음식문화 정착을 선



도하는 대표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 으뜸맛집이 목포 맛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내년에는 목포 미식 아카데미 교육 운영과 기존 으뜸맛집에 대한 강력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맛의 도시 조성을 위한 다른 사업들도

목포=박영수 기자



영광군, 거리두기 2단계 현장점검 강화 코로나19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특별 지도점검

영광군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12. 8.~12. 28.)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로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에 따라 스포츠산업과 전 직원은 2인 1조로 유희·단란업소, 일반·휴게음식점 880개소와 이·미용업소, 목욕탕을 갖춘 으뜸맛집 선정은 맛의 도시 조성의 핵심사업으로 2019년 100곳 선정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 특히, 군에서는 △일반·휴게음식점은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유

·단란업소는 22시 이후 영업 중단 △목욕장·이용·미용업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되며 목욕장의 경우에는 음식섭취 금지와 같은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모든 업소에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사항을 특별 지도점검한다. 또한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의 명물 ‘무안갯벌 탐방다리’가 만들어 진다

총 사업비 98억 투입 서남해안지역 해양관광명소 발돋움



무안군은 우리나라 최초의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써 갯벌도립공원 지정과 탐사터 습지 1732호로 등록 된 무안갯벌에 탐방다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흰발농게, 망둥어, 칠면초 등

해양보호생물 2종을 비롯한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해 해제면 유원리 부터 현경면 가입리 구간 까지 총 사업비 98억 원을 투입하여 무안갯벌 탐방다리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무안갯벌 탐방다리 설치를 위해 전라남도과 해양수산부, 지역 국회의원 서삼석 의원 등과 꾸준한 협의를 통하여 2019년에 전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 및 지방양상사업에 반영하였으며, 해수부에 2021년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반영 및 탐방다리 설치공사 사업승인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무안갯벌 탐방다리가 설치되면 기존 탐방로구간 3.8km가 탐방다리와 연결되어 갯벌을 관찰할 수 있는 5.2km의 탐방로가 완성된다. 또한 기존 탐방로 구간을 재정비하고 테마별로 힐링할 수 있는 소규모 정원화 휴식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탐방로 정비가 완료되면 무안항도갯벌랜드와 연계한 지역발전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서남해안지역의 해양관광명소로 자리잡아 갯벌도립공원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산 군수는 “무안갯벌 탐방다리가 교육적인 부분 등 무안군 관광산업의 부족한 2%를 채워줄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신안군, 보건기관 의료장비 개선 나선다

신안군은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국도비 등 4억 3000만원을 확보하고 섬 보건기관 의료장비 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의 열악한 의료환경개선과 의료장비·차량 등에 대한 기능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2018년 하의, 안태, 흥도, 가거도 등 4개소에 119억원을 투입해 기능확대형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등 시설투자가 마무리됨에 따라 장비 및 차량보강에 집중하고 있다. 확보된 예산으로 14개 보건기관에 의료장비 45대를 확충하고 보건사업 차량 9대를 구매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영암군, 3년 연속 보육정책 우수지자체 선정 ‘아이 행복 세상, 기관영양보육’ 실현 특수시책 14종 개발

영암군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분야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5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 공보육 확충 실적, 코로나 대응 등 7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영암군은 ‘아이 행복 세상, 기관영양보육’ 실현을 위해 공보육 확충, 특수시책 14종 사업을 개발·지원하였고 특히,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체온계, 방역·소독물품 등을 지원하여 선제적인 방역활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영암군 어린이집연합회와 더불어 판교가 어려운 지역 농업인을 돕고자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여 휴원 기간 중 가정돌봄 아동에게 전달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어 코로나

19 대응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다양한 보육정책 개발을 위해 어린이집 연합회 활동지원, 민관이 하나되는 정기적인 정책 논의를 통해 열린 보육시책을 개발·운영하여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보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보육교직원의 노력과 민관이 함께 끊임 없이 협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서 7번째 출산 ‘화제’

함평군, 양육지원금 1천만원 지원

함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한 부부가 최근 일곱 번째 아이를 출산해 화제다.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학교면에 사는 A씨 부부(38·35세)가 지난달 말 건강한 여아를 출산했다. 지난 2016년 여섯째 아이를 낳은 A씨 부부는 4년여 만에 일곱째를 얻어 슬하에 7남매(3남·4녀)를 둔 다둥이 부부가 됐다. 함평군은 지난 17일 일곱째를 출산한 A씨 부부를 찾아 1천만 원의 양육지원금과 아기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11종의 출산 축하선물을 전달했다. 같은 날 함평군청 간부공무원 배우자 모임인 코스모스회(회장 김순자)에서도 임산부 산후조리에 좋은 식품을



원쪽부터 오호석 학교면장/김순자 코스모스회장/아버지 목 씨/정명희 함평군보건소장 밀만찬 형태로 만들어 직접 전달했다. 특히 학교면은 해당 가정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주거여건이 열악하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마을주민 등과 연계해 주택단열을 위한 보일러 점검과 도배, 장판교체 등의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실시하면서 힘을 보탤다. 함평=김광춘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

